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목차
- 과월호
- 정기구독신청
- 사진구입



Cover_Story

Egypt

부활을 꿈꾸는 파라오의 땅

■ 글/정달호 주 이집트 대사·장성배 기자 사진/박세진 카이로 특파원·이진욱 기자
협찬/플래닛이집트투어·카타르항공

이집트에 발을 딛는 순간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 비우기'이다. 파라오의 백성들이 이룩한 문명은 빈약한 지식과 사유로는 그 윤곽조차 헤아리기 힘들다. 무수한 신화와 상형문자들이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일러온다. 그 불기해한 표정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차차에서 부유한다.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그곳에서 마땅한 자세는 오직 무욕과 겸손이다.



Luxor

불멸의 이름으로 빛은 도시

불멸의 이름으로 빛은 도시룩소르에선 시간의 흐름이 소용돌이친다. 수천 년의 세월이 한데 뒤엉키며 상상력을 잉태한다. 룩소르는 근세 이후 지난한 발굴 작업을 거쳤다. 묻히고 허물어졌던 신전들이 부활하면서 파라오의 생애와 사제, 노예들의 이야기가 복원됐다. 까마득한 옛 기억이 현재와 교감을 이룬다. '살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이 실제로 구현된 셈이다.

룩소르는 지난해 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덕분이다. 그는 슈퍼모델 출신의 카롤라 브루니와 룩소르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취재진과 파파라치들이 대통령의 밀애를 포착하기 위해 룩소르 곳곳에 진을 쳤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하룻밤 숙박비가 1100달러인 올드 윈터 팰리스(Old Winter Palace) 스위트 룸에 묵었다. 새벽 어스름이 걷히지 않은 시각에 경호원들과 함께 나일 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조깅을 했다. 야간 조명이 켜진 룩소르 사원의 거대한 기둥들이 조깅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대통령 커플은 낮에는 선글라스와 청바지 차림으로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과 카르나크 신전(karnak Temple)을 둘러보았다. 정상부가 피라미드 모양인 바위산 아래 자리한 왕가의 계곡에선 다른 여행객과 마찬가지로 70이집트파운드(약 1만2600원)의 입장권을 끊고 코끼리 열차(관광

객 수송 전동차)로 이동했다. 왕가의 계곡 입장권은 현재 공개된 14개의 무덤 중 3개가 관람이 가능하다. 사르코지는 제19왕조 세티(Seti) 1세(BC 1294~1279 재위)의 무덤을 선택했다. 세티 1세의 무덤은 왕가의 계곡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지만 파파라치들에게 모습을 공개하지 않았다. 파라오의 무덤 안에선 모든 촬영이 금지돼 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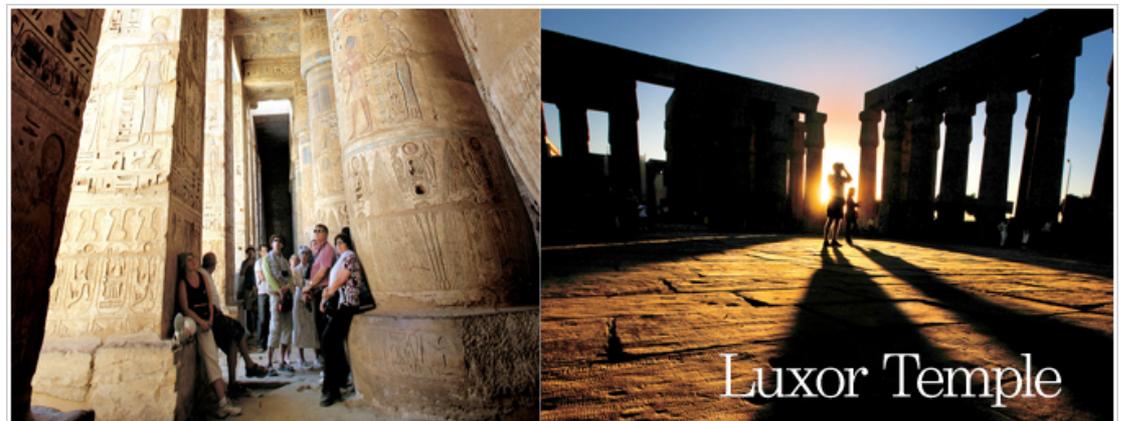
왕가의 계곡에서 나온 사르코지 일행은 나일 강가로 자리를 옮겼다. 나일 강을 수놓는 뚝단배로 일종의 수상 택시인 펠루카(Felucca)에 올라 점심 피크닉을 즐겼다. 펠루카 선미에는 프랑스 국기가 펄럭였다.

점심 후 사르코지 일행이 찾은 카르나크 신전은 테베, 즉 룩소르에서 승배되던 신인 아문(Amon 또는 Amon, Ammon)을 기리던 곳이다. 아문은 '감춰진 자'라는 의미인데 머리에 긴 깃털 장식의 관을 쓰고 의상엔 백면의 사자와 양의 두 얼굴이 그려져 있다. 아문은 수송을 담당하는 사자의 관장(贊)과 양의 관장(贊)을 두

쓰고 왼손에 생명의 상징인 열쇠 모양의 앙크(Ankh), 오른손에 남신의 상징인 권상(權杖)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아스완 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나일 강은 매년 범람하며 고대 이집트가 이룩한 문명을 모래와 자갈로 뒤덮었다. 그나마 생매장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은 도굴꾼들이 대를 이어가며 약탈하고 훼손했다. 발굴과 복원과 회수를 통해 되살아난, 오늘날 여행객들이 걸어보고 만질 수 있게 된 신전과 무덤은 다양한 국면의 풍파를 거쳐 온 '위대한 유산'이다.



나일 강변에 자리한 룩소르 사원의 기둥 사이로 해가 저물고 있다. 해가 떨어지는 곳에는 이집트 신왕국 파라오들의 묘역인 왕가의 계곡이 자리하는데, 수천 년 동안 부활을 기다리는 파라오와 왕비와 귀족들의 무덤이 흩어져 있다.

평범한 지방 신에 불과했던 아문은 테베가 이집트 신왕국의 중심이 되면서 신들의 제왕으로 떠오른다. 태양신 레(Re)와 결합돼 최고의 신인 '아문-레'가 된다. 파라오들은 아문을 기리기 위해 앞다퉈 카르나크 신전에 새 건물을 짓고 조각상을 세웠다.

카르나크 신전은 수십 개의 석대 위에 도열한 스피נק스들의 환영을 받으며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다. 카이로 기자의 스피נק스와 달리 사람이 아닌 숫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크고 우아한 뿔이 턱 밑까지 휘어져 달는다. 신전 입구에 해당되는 거대한 탐문 앞에는 람세스(Ramesses) 2세(BC 1279~1213 재위)의 석상이 두 팔을 가슴에 다소곳이 모은 채 세워져 있다. 제1, 제2 탐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면 카르나크 신전의 심장에 해당되는 대열주실(The Great Hypostyle Hall)이다. 폭 53m, 길이 102m 장방형 공간에 134개의 돌기둥이 숲을 이루고 있다. 어른 대여섯 명이 팔을 이어도 한 번에 안기 힘들 만큼 굵은 돌기둥이 하늘을 향해 찌를 듯 서 있다. 기둥과 들보, 벽면 안팎에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채색 부조가 가득하다. 파라오의 이름이 적시된 상형문자에는 타원형의 테두리인 카르투슈(Cartouche)를 둘러 구분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룩소르 여행은 일반 여행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룻밤 숙박비와 철통 경호에서 차이가 날 뿐 코스와 관람 대상은 동일했다. 프랑스 고고학자와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수행하며 가이드 역할을 했지만 방대하고 복잡한 이집트 문명은 설명도, 이해도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룩소르로 떠나기 전 이집트 상형문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익힌다면 파라오의 무덤과 신전에서 남다른 환희를 느낄 수 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샹폴리옹(Jean F. Champollion)이 복원시킨 고대 이집트 문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샹폴리옹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대가 1798년 이집트에 도착한

집느키 석사에 반열을 더 넣을 수 있다. 앵글리칸은 나일데를 편성군이 1777년 이집트에서 발견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을 연구해 이집트 상형문자인 히에로글리프(Hieroglyphs)의 음가 체계를 밝혀냈다. 그가 해독한 히에로글리프의 알파벳 음가와 독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내세관이 보다 선명해진다. 그것은 그리스신화의 원류가 된 다신교의 땅, 불멸 이고자 했던 파라오의 제국, 수천 년 동안 잊혀졌던 시간들에 대한 작은 예의이기도 하다.

여행의 맛을 돋우는 풍경

룩소르에서 하룻밤 머물 요량이라면 나일 강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는 게 좋다. 룩소르는 나일 강 동안(東岸)과 서안(西岸)으로 나뉜다.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과 내세를 의미한다. 서안에는 왕가의 계곡과 왕비들의 계곡, 파라오의 장례 의식을 치르고 제례를 지내던 장제전(葬祭殿)들이 위치해 있다. 죽음의 강 저편에 닿아 있는 신성한 구역인 셈이다.

나일 강 동쪽은 살아남은 자들의 도시이다. 파라오의 거처와 신전과 민가들이 모여 있다. 카르나크 신전과 룩소르 신전이 대표적이다. 두 신전은 본래 참배 길로 연결돼 있었다. 하지만 나일 강의 범람으로 밀려들어온 토사가 신전을 침범했고, 그것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옛 영화와 함께 잊혀졌다.

나일 강 범람의 흔적은 룩소르 신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발굴로 드러난 신전 주벽(周壁) 상단을 따라 후대에 지어진 건물의 외벽이 이어져 있다. 개흙 속에 묻힌 3000년 전의 신전과 300년 전의 건물이 수직으로 잇달으며 서로 다른 층위를 이룬다.

현재, 룩소르 신전은 파라오 시절의 혼잡과 분주함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다. 신전 주변으로 호텔과 여행사, 공원과 선착장, 쇼핑센터와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어 관광객과 룩소르 시민들로 붐빈다. 스팅크스 대오가 지키는 룩소르 신전 앞에선 디너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나일 강변도로를 따라 즐비한 여행사들은 다양한 일일투어 상품을 판매한다. 왕가의 계곡과 하트 셉수트(Hatshepsut) 여왕의 장제전을 돌아보는 서안 투어, 일몰 이후 카르나크 신전에서 열리는 소리와 빛의 향연(Sound & Light Show), 하늘의 신 호루스(Horus)가 되어 룩소르 상공을 주유하는 열기구 투어가 인기 높다. 나일 강 뚝단배인 펠루카를 타보는 것도 기억에 남는데, 가급적 해질 무렵을 택하는 게 좋다. 석양에 물든 나일 강과 왕가의 계곡이 빛어내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룩소르의 명물인 관광 마차는 룩소르 신전 주변을 비롯해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호객 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워낙 노련한 마부들인지라 가격 흥정을 잘 해야 한다. 1달러를 내고 타는 관광객이 있는가 하면, 10달러를 뜯기는 경우도 있다. 이집트는 병원비도 깎을 수 있는 곳으로 최적의 흥정을 위해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요금이 정해지면 손님은 마차의 가죽 시트에 앉아 약 1시간 동안 룩소르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된다. 주로 흙먼지 풀풀 날리는 재래시장 골목을 헤집고 다닌다. 이국적인 과일과 향신료, 나일 강에서 그물로 잡은 물고기, 둥글 납적한 아이시(Aysh) 빵을 볼 수 있다.

룩소르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대부분 전통 의상인 갈라베야(Galabeya)를 입고 있다. 회색과 하늘색 계열이 주를 이루는데,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옷이다. 목둘레가 둥그렇게 파인 원피스 형태로 앞 윗부분이 트이고 전체적으로 헐렁하다. 뜨거운 햇볕은 가려주고 바람은 잘 드나든다. 기념품 쇼핑 상가에 들러 한 벌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베두인 족의 유목민과 낙타 대상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오가던 바하리야 사막에 어둠이 짙게 내렸다. 오염 때문에 생긴 스모그로 뿌연 하늘도 없고, 별빛을 흐리게 하는 휘황찬란한 조명도 없다. 빛이라고는 오로지 달빛, 별빛뿐이었다. 텐트 속으로 수많은 별이 쏟아져 들어와 그야말로 ‘별빛 샤워’를 만끽할 수 있다. 별이 흩뿌려진 사막의 밤은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특별한 영감을 선사한다.

얼마 안 가서 검고 딱딱한 바닥을 지나다가 보니 볼케닉 마운틴(volcanic mountain)이라 불리는 산들이 나왔다. 그 중 제일 높은 산 앞에 내려 자세히 관찰해보니 편편한 꼭대기 부분이 자수정처럼 다다다닥 붉은 용암의 돌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마치 아랍인이 터번으로 머리를 두른 형상이다. 바닥은 잔 돌과 굵은 모래들이다. 아마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분출물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깎이고 부딪치고 부서지면서 작은 돌이 되고 모래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주변이 검은 색 돌과 모래 일색이라서 흑사막으로 불리는 모양이다.

흑사막에서 나오니 아직도 초가을의 태양 아래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아스팔트의 길이 끝없이 뻗어 있다. 이 길을 계속 내려가면 아스완을 거쳐 수단에까지 이른다고 한다. 멀리 오른쪽으로는 바위의 산들이 사막을 둘러싼 벽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드문드문 어두운 색의 바위산들을 지나 뿌연 들판이 보인다. 왼쪽으로 들어가 황량한 벌판을 가로지르다 보니 특이한 풍경이 나온다. 마치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별에 착륙한 느낌이었다. 사방에 버섯처럼 생긴 흰 돌들이 돌출해 있는데 큰 것은 높이가 10m 이상인 것도 있고 작은 것은 2m 정도인 것들로 시야의 끝까지 같은 풍경이다.

이곳을 백사막(White Desert)이라고 한데, 사막이라기보다는 돌처럼 단단한 바닥과 그 위로 솟은 돌출부 사이사이에 모래가 쌓여 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돌들의 색깔이 흰색이라 이들이 깎이고 부서지면서 흰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어떤 곳은 얼음덩어리같이 생긴 바위들과 눈처럼 흰 모래 때문에 알래스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그러나 흑사막이든 백사막이든 검고 흰 색깔을 빼면 사막을 이루는 모래는 대부분 어디선가 날아와서 쌓인 것으로 보인다. 사막이 아닌 아스팔트 길에도 모래가 덮여 있는 것을 보면 모래는 거센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날리면서 모이고 흩어지게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지런히 사막을 누볐던 만큼 해는 어느덧 지평선 가까이 와 있다. 혹은 인간처럼 혹은 동물처럼 갖가지 모양으로 된 바위들 사이 모래밭에 밤을 지낼 천막을 친다. 사막 사파리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시간에 쫓겨 확실히 챙겨보고 오지는 않았으나 지는 해를 보면서 내일은 고운 모래언덕들이 만드는 풍경을 만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베두인 족 형제가 지붕 없는 텐트에 기다란 상까지 마련해 놓고 저녁 준비에 한창이다. 가져온 나무로 불을 지피고 물로 씻고 칼로 썰고 냄비에 끓이다가 하면 발이 달린 석쇠를 모래 위에 올려놓고 치킨 바비큐를 만든다고 난리다. 날이 어둡해질 무렵이 돼서야 이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는다. 야외, 그것도 사막에서 식사를 하면 무얼 먹어도 맛이 있어야 하련만 이들이 만든 것은 도무지 입에 맞지 않는다. 김밥을 꺼내서 먹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만든 이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그저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어놓았다.

곧 광대한 밤하늘에 별 발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볼 요량으로 아까부터 하나 둘 세어본 별은 벌써 세지 못할 만큼 늘어났다. 반도 덜 찬 달인데도 그 빛이 흰해서인지 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다. 기대에 어긋나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 하랴, 하늘의 일임을! 아직 초저녁이지만 달리 할 일도 없어 우선 자리에 들고 보았다. 텐트 속에 깔아 놓은 매트리스 위에 가져온 침낭을 펴고 누우니 가뜩이나 피곤했던 터에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막이라 밤에 좀 한기가 느껴진 때문인지 문득 깨어나 시계를 보니 한 시 반쯤이나 된 것 같았다. 텐트 밖으로 나가니 정말 별천지(別天地) 아니 별(星)의 천지였다. 달이 사라지고 나서 하늘엔 가득 찬 별밖에 없었다.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을 보는 것은 아마도 어릴 때 시골을 떠난 이후에는 없었을 것이다. 별들이 눈 속으로 빨려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은 좀 과장이지만 정말 별과 내 눈 사이에는 차고 맑은 공기밖에 없으므로 별들이 그렇게 명징할 수가 없었다.

별을 보고나서 다시 자는 등 마는 등 한참을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다. 사막의 여명을 지켜보면서 베두인 빵과 삶은 계란에다가 집에서 가져온 커피를 모닥불에 데워 대충 아침을 때우고 짐을 꾸려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였다. 주변의 다른 그룹들도 하나하나 길을 떠나고 있었다. 흑사막과 백사막을 보고 나서 나는 어디선가 바람에 날려 온 모래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모래사막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 만큼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막은 그렇게 가까이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어렴풋한 예감이 마음 한 구석에 스며들었다.



룩소르의 신전과 파라오의 무덤, 백사막과 흑사막,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 이집트 여행은 긴 귀적을 그린 후 다시 나일 강으로 돌아온다. 카이로가 자리한 나일 삼각주는 곧게 솟은 줄기 끝에서 만개한 파피루스 같다. 강과 바다가 포개지고 숲과 사막이 어우러진 강가에 해가 지면 극상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물빛과 하늘빛이 조용해 찬연한 어둠으로 시선 가득 몰려온다.



아랍 또는 중동 하면 요즘은 석유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 전에는 낙타의 대열이 지나가는 사막과 오아시스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동 생활이 한 번도 아닌 나는 아직껏 사막다운 사막을 보지 못했다. 이집트에 와서도 동쪽 시나이반도로 두 번이나 여행을 했지만 제대로 된 사막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막 사파리에 도전해 보았다.

카이로 남서쪽에 위치한 바하리야(Bahariya)를 목적지로 아침을 먹기가 무섭게 출발했다. 4시간을 달려야 오아시스를 낀 이 마을에 도착하고 거기서부터도 한참을 들어가야 사막이 나온다. 오아시스도 그렇지만 '아라비아의 로렌스'나 '잉글리시 페이션트' 같은 영화에서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고운 모래언덕의 사막을 본다는 기대가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주었다. 사막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눈 속으로 빨려 들어올 듯이 가깝게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모처럼 원시의 하늘과 투명한 별을 보리란 설렘도 있었다.

카이로를 벗어나 30분 정도 되었을까, 갑자기 진한 안개가 시야를 가로 막는다. 건조한 사막의 나라에 웬 농무(濃霧)라니. 나일 강 부근이라면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할 터이지만 벌써 황량한 벌판에 들어섰는데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질을 수 있는가, 하고 애써 불안감을 덮어보려 하지만 안개는 안개다. 앞은 5m 이상이 안보일 지경이었다. 이 상태로 가면 서너 시간 더 가봤자 사막도 못 보고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30분 정도가 지나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길과 평행으로 난 외로운 철길 외에는 텅 빈 황야다. 드문드문 서있는 송신탑들을 지나 드디어 바하리야에 도착하니 베두인 가이드가 4륜 구동 차량인 랜드 크루저를 가지고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보통은 4명 정도를 한 그룹으로 해서 사막 사파리에 나선다는데 우리 둘만 태우고 가겠다며 특별한 대우임을 몇 번씩 강조한다. 운전수와 형제간인 베두인 족 가이드는 농사일을 진작 접고 가족이 다 과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미그자이크리드 여섯 배의 노우 더에 노니니 무츠너디디 히

이 낡은 건널목에 귀 기울였다고 한다. 비투덜이도 아니고 강이를 배겨 좋은 덕에 승사나 죽죽도 아니고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게 되었으니 이 베투인 측은 길을 잘 잡은 셈이다.

마을에서는 점심을 먹을 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떠나면서 김밥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에 김밥으로 점심을 때웠다. 서양 사람들 같으면 샌드위치를 준비해 오겠지만 이런 여행을 나설 때 우리 김밥만큼 좋은 것이 없으리란 생각이다. 먹고 남은 김밥 한 팩은 베투인에게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우선 아이스박스에 넣어 두었다.

마을을 벗어나 드디어 사막지대로 들어섰다. 흑사막(Black Desert)으로 불린다는 곳인데 약 20여 분 들어가니 검은 모래밭 가운데 제법 커다란 황색의 모래 언덕 하나가 나온다. 차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가면서 사각사각 밟히는 느낌이 좋았다. 모래를 한 줌 떠서 비벼보니 보드랍기는 금분 같아도 감촉은 제법 탄탄하다. 사르르 손에서 떨어지는 모양새도 좋았다. 그렇다! 나는 이 모래의 사막을 보러 온 것이다. 어디에서 생겨난 어떤 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부서지고 석이면서 이렇게 곱고 탄탄한 모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곧 본격적인 모래의 바다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 속에 다시 이동했다.



카이로는 나일 강이 낳았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잘 카이로를 설명할 방법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일 강이 만개한 파피루스처럼 도심을 감싸며 지중해로 흘러든다. 열대 밀림과 사바나, 사막을 가로지른 도도한 물줄기가 드넓은 삼각주를 이루며 소멸한다. 나일 강이 수 갈래로 작렬하며 바다가 되는 순간 카이로가 태어난다.

카이로에 도착하면 누구나 피라미드부터 찾아가려고 한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이름, 눈에 각인됐을 만큼 사진과 영상으로 접해온 그 불가사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일 강을 보는 게 순서다. 나일 강이 없었다면 고대 이집트의 첫 수도인 멤피스와 피라미드도, 지금의 카이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일 강 디너 크루즈는 카이로 여행의 워밍업에 해당된다. 피라미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열정을 어느 정도 식혀준다. 디너 크루즈는 카이로 도심 선착장에서 출발하는데, 대개 2시간 코스로 운항하면서 이집트 전통 공연과 음식을 선보인다.

수피(Sufi) 댄스와 벨리(Belly) 댄스는 거의 모든 나일 강 크루즈 업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벨리 댄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춤으로 다산(多産)에 대한 기원을 의미한다. 수피 댄스는 이슬람 신비주의 분파인 수피교도들의 의식에서 유래했다. 화려한 원색의 치마를 입은 남자 무용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빙글빙글 도는 방식이다. 치마를 겹겹이 끼입고 머리에까지 뒤집어서 탄누라(Tanura, 치마) 댄스로 불린다. 수피교도들은 자신들만의 금욕 생활과 수행법을 통해 신비 체험을 하는데, 춤도 그 중 하나다. 같은 방향으로 한없이 돌다보면 무아지경에 빠져 결국 신과 소통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알록달록한 ‘팬이 인간’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경이로움 그 자체다.

나일 강을 오르내리며 카이로의 공기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피라미드로 향할 시간이다. 대피라미드군(群)은 카이로 남서쪽 기자(Giza) 지역에 자리한다. 숙소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행객 대부분은 지하철로 기자까지 이동한다. 택시나 버스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매연으로 인해 피하는 게 낫다.





기자 피라미드는 이집트 전역의 80여 기의 피라미드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 제4왕조의 쿠푸(Khufu), 카프라(Khafra), 멘카우라(Menkaura) 왕의 이름이 각각 붙어 있다. 카이로의 살인적인 대기오염에 가려 먼 거리에선 윤곽조차 희미하다.

피라미드에 얽힌 이야기 중 일반의 추측과 상반되는 것은 누가 쌓았느냐이다. 강력한 왕권의 파라오가 노예와 전쟁 포로를 동원했다고 추정한다면 틀렸다. 피라미드는 나일 강 범람으로 생계가 막막한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파라오는 매년 여름 찾아오는 범람기에 국가의 곳간을 열었는데, 그 명분이 피라미드 건축이었다.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천문학, 수학, 기하학, 건축학 지식을 갖춘 사제들이 진두지휘했다. 파라오의 백성들은 정당한 품삯을 받고 일했으며 쉬는 날에는 나일 강에서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기자에선 피라미드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다. 스피нк스과 장제전이다. 피라미드는 본래 장제전, 스피нк스과 일체를 이루는 복합 건축물이다. 기자에는 단 하나, 카푸레 왕의 피라미드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스피нк스만 남아 있다. 사람 머리와 사자 몸통의 반인반수로 BC 2600년 경에 하나의 거대한 돌로 조각됐다.

카푸레 왕의 스피нк스는 수천 년 세월이 흐르면서 목 아랫부분은 모래에 파묻혔다. 머리의 코브라 장식과 코, 수염 부분은 오스만투르크와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략 당시 포사격으로 떨어져 나갔다. 현재,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스피нк스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해와 풍화작용으로 침식 손상된 부분을 보존 처리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자의 장제전은 기둥과 벽면만 남은 상태다. 벽면끼리 만나는 모서리가 돌쩌귀처럼 곡면을 이루게 다듬어 층층이 쌓아 올렸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빈틈없이 지은 장제전에선 파라오의 장례를 치르고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미라 작업은 죽음의 신 아누비스(Anubis)의 가면을 쓴 신관이 주관했다. 사제들은 파라오의 시체를 씻은 후 왼쪽 옆구리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몸의 모든 수분을 제거한 뒤 향유를 발라 수습 일 동안 건조시켰다. 두개골은 입이나 코로 손가락 형태의 도구를 집어넣어 빼냈다. 그리고 분리된 간, 폐, 위, 창자 등은 포도주와 향유로 씻어 호루스의 네 아들을 상징하는 4개의 카노푸스 항아리(Canopic Jar)에 각각 넣어 보관했다. 사제들은 시신의 방부 처리 과정에서 콧날을 오뚝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공에 후추 열매를 채우고 작은 동물 뼈를 지지대로 삽입했다고 한다.

미라 작업 과정에서 심장을 떼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심장을 남긴 이유는 죽은 이가 영생을 부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다. 미라와 함께 매장된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누비스가 진리의 방에서 사자(死者)의 심장을 저울에 올려놓고 깃털과 비교해 심판한다고 믿었다. 생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그 영혼은 다시 미라와 합일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 카이로를 찾아가면 부활을 기다리며 요동치는 파라오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집트 여행을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Planet Egypt Tour**

이집트만큼 볼거리와 체험이 다채로운 곳도 드물다. 장엄한 고대 문명부터 사막의 경이로운 하룻밤, 홍해에서 즐기는 골프와 스쿠버다이빙까지 선택의 폭이 방대하다. 어느 곳을 어떤 방식으로 여행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조합의 코스가 만들어진다.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루트를 찾는 일이 관건인데, 플래닛이집트투어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플래닛이집트투어는 카이로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이집트 전문 여행사다. 서울에 별도 법인(주)엘로이티큐브를 설립해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 충분한 상담과 귀국 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나.

플래닛이집트투어 오종권 대표는 1980년대 초부터 카이로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패키지, 허니문, 비즈니스 방문, 가족여행 상품을 선보여왔다. 공항 및 호텔에서 관광지까지 전용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와 최소 3시간부터 1박 2일에 이르는 다양한 투어 상품을 운영한다. 관광지나 박물관에서의 가이드도 한국인, 현지인 영어 가이드로 세분화돼 선택이 가능하다. 또, 카이로 도심에서 한식당 청솔(Pine Tree)과 장기 출장자를 위한 레지던스 룸도 운영 중이다.

특히, 각 투어 상품을 결합한 형태의 데이 투어 플러스(Day Tour Plus)를 신청한 여행객에게는 GSM 방식의 현지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이집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카이로 사무실의 한국인 직원과 통화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배낭여행객들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지해 비행기 표만 예약하고 와서 바가지 물가와 낙후된 환경, 영어도 잘 안 통하는 현지 문화와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무수한 사건, 사고를 예방해주는 차원에서다.

오 대표는 최적의 이집트 여행을 위해선 실제 현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집트는 오랜 역사가 녹아 있는 나라인 만큼 역사, 문화, 건축, 종교 등의 관심 분야에 따라 이집트 전문 서적 한 권 정도는 읽고 오기를 권했다.

*플래닛이집트투어는 가족이나 작은 규모의 단체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인 '4인 4색'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패키지 여행과 개별여행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4인이 함께 움직이며 이집트 곳곳을 돌아보게 된다. 영어 구사 가이드가 동행하며 '이집트 왕자 흥해 공주(224만 원부터)', '사서 고생 배낭여행(193만 원부터)', '나일 강을 따라 크루즈(234만 원부터)' 등 세 가지 테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02-540-1641~2, www.planetegypttour.com

아라비아와 지중해를 수놓는 다섯 개의 별 **Qatar Airways**

카이로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중해가 서로 만나는 국제도시다. 이곳을 기점으로 수많은 항공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카이로에 취항하는 항공사 또한 매년 늘고 있는데, 오성급(5 Star) 항공사를 대표하는 카타르항공도 그 중 하나다.

머나먼 이집트까지 날아가 왕가의 계곡과 피라미드만 보고 온다면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장장 15시간을 비행해 도착했는데 적어도 이집트 이외에 한곳은 더 둘러봐야 하는 게 마땅하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카타르항공은 이집트를 경유하는 일정을 짤다면 1순위로 올려놓아야 한다. 여행지 선택의 다양함과 시간,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보다 더 합리적인 항공사는 찾기 힘들다.

현재, 카타르항공은 인천-도하 직항편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도하에 다음 날 새벽 5시 45분에 도착하는데, 도하-카이로 항공편 출발 시간인 오후 1시까지 한나절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면 도하 시내를 관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도하 도심은 공항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닿는다.

도하에선 재래시장 수크(Souq)를 방문할 만하다. 해안가 코니시(Corniche)에서 지척인, 도하에서 가장 오래된 수크 와키프(Souq Waqif)가 대표적이다. 진흙 벽돌과 야자나무를 이용해 지은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즐비하다. 미로처럼 얽힌 수십 개의 골목마다 자리한 상점에선 아라비아 전통 의상, 장신구, 카펫, 향수, 공예품, 악기, 보석 등이 판매된다. 아라비아 유목민들의 취미인 사냥매(Falcon) 가게도 둘러볼 수 있다. 물론 라마단 세일 기간이라면 현대적인 쇼핑몰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시티센터, 빌라지오, 랜드마크 등 초대형 쇼핑몰에서 세계 최저 가격에 명품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다.

도하에선 카이로 이외에도 터키(이스탄불), 그리스(아테네), 모로코(카사블랑카) 직항편이 운항된다. 각 지역마다 호텔과 투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홀리데이 상품이 판매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타르항공은 한국인 승객을 위한 세심한 서비스로도 정평이 났다. 매월 3가지의 한국 음식이 계절별 메뉴와 함께 기내식으로 제공된다. 한국인 승무원도 300여 명에 달해 비행 중 언어 소통에 불편함이 없다. 02-3708-8571~3, www.qatarairways.co.kr

Egypt Information

이집트는 파라오의 후예답게 아프리카의 맹주를 자처한다.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공존한다. 극심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세계 주요 국가의 정보 요원들이 치열한 정보 전쟁을 벌이던 곳으로 정평이 났다.

이집트의 어제와 오늘

파라오의 시대는 BC 1세기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후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진출해 여러 왕조가 명멸했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보호령으로 식민 통치를 받았다. 특히 영국 지배 기간에 수에즈운하가 개통돼 카이로는 세계 무역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 독립해 왕정이 복귀했지만 1952년 나세르를 중심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 수립됐다. 1981년부터 무바라크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이다. 현재, 이집트는 인류 문명의 금자탑을 남긴 파라오 시대와 달리 빈곤의 그늘이 짙다. 이집트 전체 인구의 약 20%가 절대빈곤층에 속한다. 국가 재정의 대부분은 관광 수입과 해외에 진출한 근로자들의 송금, 수에즈운하 통과세, 원유 수출이 차지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종합 집계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매년 100위 밖에 머문다. 문맹률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인구 지난해 기준으로 약 7600만 명이다. 인구의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이슬람 국가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10%가 이집트 토착 기독교인 콥트(Copt) 교도이다. 이로 인해 이슬람교와 콥트교가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콥트교의 성탄절(1월 7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지리 동쪽은 홍해와 시나이반도, 서쪽은 리비아와 사하라사막, 남쪽은 수단, 북쪽은 지중해와 면해 있다. 한반도의 약 4.5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이지만 전체 국토의 90% 이상이 불모의 사막이다. 장장 6650km가 넘는 긴 나일 강이 국토를 남북으로 가르며 흐른다. 나일 강 상류가 우기인 때에는 풍부한 수량이 이집트를 적셔주지만, 건기에는 강 주변이 바닥을 드러낸 지류들로 복잡하게 뒤엉킨

모습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수많은 가지가 얽히고설킨 탱자나무를 보는 듯하다.

기후 지역별로 사막, 아열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등 지중해에 접한 지역은 여름에도 그다지 무덥지 않다. 겨울에는 차가운 모래 바람이 불어 꽤 쌀쌀한 편이다. 간혹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한다. 한여름을 제외하면 연중 여행을 즐기는데 별반 무리가 없다.

통화, 시차 통화 단위는 이집트파운드(E £)이다. 1이집트파운드는 100피아스트르(Piastres)이다. 지폐는 1, 10, 20, 50이집트파운드 4종류이고, 주화는 5, 10, 50피아스트르 3종류이다. 3월 중순 기준으로 1이집트파운드는 약 180원이다. 은행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문을 연다. 매주 금, 토요일은 휴무이다. 현금자동인출기(ATM)는 카이로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시차는 카이로가 한국보다 7시간 느리며, 서머타임 제도는 없다.

비자 카이로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 인지(15달러)는 입국 수속장 안에 위치한 은행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지를 여권에 붙여 입국 심사 시 제출하면 된다. 비자는 출국 전 주한 이집트 대사관(02-749-0787)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도 있다.

현지 교통 카이로 시내에선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택시는 많은 편이지만 서울만큼 깨끗하진 않다. 카이로는 세계 중고차의 전시장이라 불리는 만큼 택시 또한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서울에선 이미 오래 전 자취를 감춘 포니 차량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택시 요금은 탑승 전에 흥정하는 게 좋다. 버스 노선은 카이로 시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지만 여행자가 이용하기엔 녹록치

않다. 작은 승합차가 버스로 이용되는데, 매연과 땀 냄새에 폭 찌들 각오를 해야 한다. 정류장도 따로 없다. 타고 내릴 사람이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멈춘다. 장거리 운행 버스는 대부분 카이로 타하 힐 광장에서 출발하며,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노선은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수에즈,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행 버스도 주야로 운행된다. 카이로의 지하철은 2개 노선이 운영되는데, 10이집트파운드(약 180원)만 내면 구간에 관계 없이 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앞쪽 두 객차는 여성 전용이다. 여성 전용 칸에 남성이 탈 경우, 적발되면 범칙금 100이집트파운드를 물어야 한다. 철도망은 카이로를 중심으로 룩소르, 아스완, 알렉산드리아로 이어지는데, 4등급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1~2등급 좌석을 이용한다. 카이로와 룩소르를 오가는 야간침대열차(www.sleepingtrains.com)는 약 10시간 소요된다.

이집트 고고학박물관 1835년 설립된 박물관으로 이집트에서 발굴된 유물의 정수를 전시하고 있다. 12만 점 이상의 고대 이집트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는데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와 람세스 2세 관련 유물이 대표적이다. 관람료는 20(어린이 10)이집트파운드이다.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10~175이집트파운드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www.egyptianmuseum.gov.eg

칸 엘 칼릴리 시장 카이로 동쪽에 위치한 칸 엘 칼릴리 시장(Khan El Khalili Bazaar)은 한국의 남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섞어놓은 듯하다.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고 호객행위도 심하다. 하지만 품목이 다양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600여 년 전부터 이집트의 대외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주변 중동 국가들과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목던 속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장신구, 카펫, 향신료, 골동품, 낙타, 수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이 거래된다. 보석으로 장식된 펜던트에 상형문자로 이름을 새겨주는 곳도 있다. ‘칼릴리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을 만큼 품목이 다양하다.

하트셉수트 장제전 룩소르 왕가의 계곡 산등성이 너머에는 제18왕조의 5대 파라오인 하트셉수트(Hatshepsut, BC 1479~1458 재위)를 위한 장제전이 자리한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3층의 거대한 테라스와 수십 개의 기둥,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신전 벽면과 기둥에 새겨진 채색 부조가 특히 인상적이다. 하트셉수트는 파라오 칭호가 부여된 유일한 여성이다. 왕가의 계곡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투트모세 1세의 딸로 이복동생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했다. 남편 사후 후궁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인 투트모세 3세의 섭정자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투트모세 3세는 하트셉수트가 사망한 뒤 오랜 섭정에 대한 앙갚음으로 장제전에서 그녀의 이름을 파내고 오벨리스크를 파괴했다.

왕가의 계곡과 투탕카멘 투탕카멘(Tutankhamun)은 룩소르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되지 않은 유일한 파라오다. 그의 미라를 덮고 있던 황금 마스크는 룩소르는 물론이고 이집트 전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대표한다. 1922년 11월 4일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해냈다. 투탕카멘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소년 파라오이다. BC 1333년 아홉 살에 왕위에 올라 파라오가 되었고 누나인 안케센아멘과 결혼했다. 근친결혼은 이집트 왕가의 풍습이었다. 한 세대 전까지도 이집트의 시골에선 사촌간 결혼이 일반적이었다.

투탕카멘은 자신의 무덤이 완성되기 전에 요절했다. 약관을 앞둔 나이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역사가들은 그가 사냥 중 전차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의 미라를 보면 왼쪽 다리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심한 골절이 있다.

이집트 당국은 발굴 이후 석관에 보관돼 있던 투탕카멘 미라의 훼손 부위를 복원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특수 제작된 유리상자에 안치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왕가의 계곡 입장권 가격인 70이집트파운드(약 1만2600원)보다 비싼 80이집트파운드(약 1만4400원)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무덤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자 입장객 수를 하루 400명으로 제한했다. 사람의 땀이나 호흡으로 탄산가스와 습기가 전해지면 미라의 훼손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람세스 3세 장제전 룩소르 서안에 위치한 람세스 3세(BC 1186~1154 재위)의 장제전으로 메디네트 하부(Medinet Habu)로 불린다. 이집트의 장제전 중 보존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 파라오의 대신전 외에 왕궁, 사제들의 거처, 신성호수, 나일 강 수위표, 작업장, 행정청, 창고, 도서관, 마굿간, 우물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집트 신전 부조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www.eternegypt.org 이집트 역사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이집트 문화자연유산기록센터(CultNat)와 미국 IBM사가 공동 개발했다. 기자의 피라미드군(群)을 비롯해 아부심벨 사원과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 알렉산드리아 카이트 베이 요새 등 이집트 전국의 유적과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파라오 시대는 물론 그리스·로마, 콥트 및 이슬람 시대 유적과 유물의 멀티미디어 동영상과 고화질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